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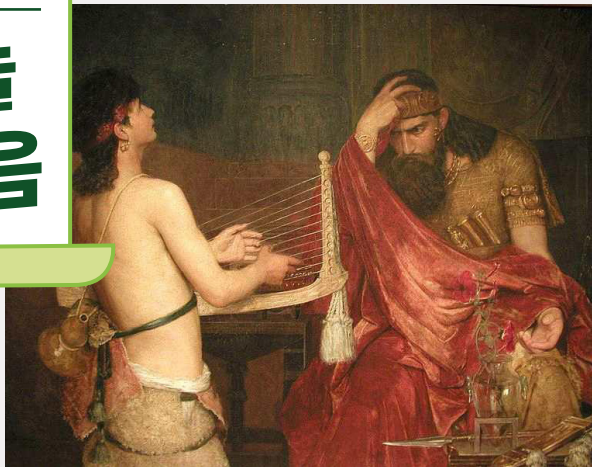


2025년 2월 23일

연중 제7주일

NO. 2177

하늘 마음



언스트 조셉슨의 <다윗과 사울>



임당송

주님, 저는 당신 자애에 의지하며,
제 마음 당신 구원으로 기뻐 뛰리이다.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노래하리이다.

제1독서 1사무 26,2,7-9.12-13.22-23

회답송

- ◎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
-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의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 이름 찬미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
- 네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네 모든 아픔을 없애시는 분.
네 목숨을 구령에서 구해 내시고,
자애와 자비의 관을 씌우시는 분. ◎
-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며,
분노에는 더디시나 자애는 넘치시네.
우리를 죄대로 다루지 않으시고,
우리의 잘못대로 갚지 않으시네. ◎

-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가 먼 것처럼,
우리의 허물들을 멀리 치우시네.
아버지가 자식을 가여워하듯,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 가여워하시네. ◎

제2독서 1코린 15,45-49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 ◎ 알렐루야.

복음 루카 6,27-38

영성체송

주님의 기적들을 낱알이 전하오리다.
지극히 높으신 분, 저는 당신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당신 이름 찬미하나이다.

맨 처음 교황이 되신 분은 누구일까?

성 베드로 대성당



신내동성당 부주임

유재현 다니엘 신부

즐거운 방학 잘 보냈나요? 예수님의 사랑과 은총 속에서 행복하게 지냈기를 바라요. 그래도 혹시 방학 중에도 공부만 하느라 너무 고생한 건 아닌지 걱정이 되네요. 각자 꿈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스스로에게 휴식을 주는 것이 꿈을 이루는 데에 꼭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해요.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원래 목적지와 다른 곳으로 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잠시 쉬어 가며 ‘첫 마음’을 되새기는 시간은 언제나 귀중한 삶의 이정표가 되어줄 것 같아요.



성 베드로 대성당 전경

그런 의미로 오늘은 **성 베드로 대성당**에 대해서 알아보게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성 베드로 대성당은 예수님께서 직접 뽑으신 사도들 중의 으뜸이었고, 그리스도인 최초의 교황이었던 **베드로 사도가 묻히신 무덤 위에 세워진 성당**이에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이기도 합니다. 또한 교황님이 계신 바티칸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대성당이죠. 성 베드로 대성당은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이 한번은 방문하고 싶어 하는 성당이자, 세상에서 가장 유명하고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성당이에요. 교황님께서 공식적으로 집무를 보시고 전례를 집전하시는 성당이기도 하고요. 이처럼 성 베드로 대성당이 가장 중요한 성당으로 손꼽히는 이유는 바로 최초의 교황님이셨던 베드로 사도가 묻히신 무덤 위에 건설된 성당이면서도, 지금 교황님께서 계신 대성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이끄는 지도자인 교황님이 계신 곳, 가톨릭교회의 시작과 끝, 알파이자 오메가를 상징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죠. 최초의 교황이었던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께 직접 **‘케파(반석)’**이라는 이름을 받으셨던 분이셨어요.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천국의 열쇠를 받으셨고, 예수님께서 3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으며, 그 물음의 마지막에는 당신의 양 떼를 돌보라고 명령받으신 분이기도 하죠.

¹⁾ 케파(Kepha) : 케파는 예수님께서 쓰시던 아람어의 단어이다. 그리스어로 번역하면 ‘페트로스’, 곧 베드로가 된다.



성 베드로 광장에 있는 베드로 성상

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부족함을 보이기도 했어요. 예수님께서 수난과 부활을 예고하시자,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했다가 예수님께 사탄이라고 혼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붙잡히자 도망가다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며 배신한 겁쟁이기도 했죠. 물론 ‘모른다.’라고 얘기하자마자 새벽닭이 우는 것을 들으며, 예수님께서 당신을 3번이나 부정할 것이란 예언을 들었던 것을 떠올리고 후회하며 슬피 울기도 한 인간적인 분이었어요. 그 외에도 성경 속에서 베드로 사도의 부족한 부분을 들려주고 있지요.

베드로 사도는 부족하고 겁쟁이이기도 하고 후회에 빠지기도 하는 그런 일반인이었어요. 동시에, 겁 많고 부족할지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절대로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으신 불굴의 신앙인이기도 합니다. 가톨릭교회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36년 후, 베드로 사도는 로마의 박해를 피해 피난을 가고 있었다고 해요. 그때 오히려 박해 중이던 로마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물었다고 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히러 로마로 간다.’라고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이에 베드로 사도는 부끄러운 마음을 다잡으시며 회개하고, 결연히 로마로 되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순교하신 베드로 사도의 유해를 모신 무덤 위에 세워진 성당이 바로 성 베드로 대성당의 시작이었어요. 그 후 수많은 건축을 통해 지금의 웅장하고 위대한 모습으로 변하였지만, 이 성당이 처음 품어낸 의미는 바로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까지 바쳤던 베드로 사도의 믿음과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큰 꿈이 있어요. 성 베드로 대성당처럼 크고 위대한 꿈이겠죠. 하지만 그 위대함과 웅장함 안에는 부족하고 겁에 질려 순간순간 도망치더라도 절대로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았던 마음, 다시 말해서 언제나 믿음과 희망,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꼭 마음속에 간직하면 좋겠어요. 새 학기를 앞둔 지금, 여러분이 잠시라도 방학을 즐기며 스스로 품고 나아가 마음의 무엇인지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마음을 다잡는 시간이 되길 희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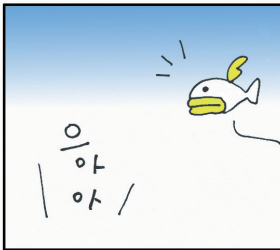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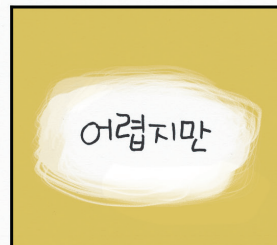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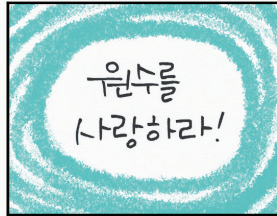
성 베드로 대성당 내부



날으는 CYA

엄현아 안젤라 | zzz-h@hanmail.net







하나되는 공동체 3지구를 소개합니다!



제3은평지구
교사연합회회장
박은경 레지나

Q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지구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3지구는 은평구에 위치한 9개 본당(갈현동, 구파발, 녹번동, 불광동, 수색, 신사동, 역촌동, 연신내, 응암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3지구 중고등부 교사 연합회는 ‘하나 되는 공동체 3지구’라는 뜻을 담아 ‘하나공삼’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3지구 회장단은 회장 박은경 레지나, 부회장 박한성 베드로, 총무 윤정우 비아, 서기 이준표 안토니오 선생님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함께해 주실 CYA 담당 선생님 두 분을 모집 중입니다!



그리고 각 본당의 CYA 회장과 부회장 친구들이 모인 CYA 회장단 ‘주바라기’는 올해로 벌써 28기가 되었어요. 주바라기 친구들은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진행하면서 ‘소리모아 사랑모아’ 행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준비하고 이끌어가는 역할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감단 회의는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CYA 회의는 매달 둘째 주 토요일이나 주일 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Q 지구 SNS 계정을 활발하게 운영중이신데요. 계정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나요?

SNS는 서기 선생님이나 CYA 회장단 담당 선생님께서 운영해 주시며, 현재는 2023년부터 CYA 회장단을 맡고 계신 선생님께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고 계십니다!

게시물은 매달 진행되는 교감단과 CYA 회의 및 행사에 대한 공지, 그리고 회의, 행사를 진행하며 찍은 사진을 위주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Q 올해 지구 운영을 앞두고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신가요? 3지구에서 계획 중인 행사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정신없이 달려온 2024년이 지나가고, 어느새 2025년 푸른 뱀의 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더욱 성장하고 변화하는 3지구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회장단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구를 운영**해 나가며,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 새로운 시작하는 교사분들을 환영하는 **‘신입교사의 밤’**과 모든 교사가 함께하는 **‘교사축제’**를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3지구만의 특별한 행사인 **‘소리모아 사랑모아’**도 진행될 예정인데요. 1부 ‘사랑모아’에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고, 2부 ‘소리모아’에서는 본당별 합창을 통해 하느님께 마음을 모아 드리는 뜻깊은 시간을 보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CYA 학생들과 내년 CYA 학생들이 함께하는 **‘주바라기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행사를 통해 2025년을 의미 있게 마무리하려 합니다.

Q 우리 지구의 특별한 장점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3지구의 가장 큰 장점은 모든 선생님과 CYA 학생들이 행사나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서로 따뜻하게 소통한다는 점입니다. 덕분에 매년 열리는 행사들이 즐겁고 의미 있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3지구의 따뜻한 분위기가 주님께셔도 보시기에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Q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3지구 CYA 친구들과 회장단 선생님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3지구 선생님들, 그리고 주바라기 친구들! 선생님들과 주바라기 친구들 모두가 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심 가져준 덕분에 모든 행사가 더 특별하고 풍성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적극성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주님 안에서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풍성해지고, 그 시간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의미 있는 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중고등부, 하나공삼! 모두 파이팅입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제3은평지구 교사연합회 선생님들과 CYA 친구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복음자리

2025년 2월 23일 | 연중 제7주일
(루카 6,27-38)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루카 6,36)

새겨보기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행하며,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또한, 폭력을 참아내고 나눔을 강조하시며, “남이 너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복음의 윤리를 설명하는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셨고 본보기가 되어주신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실천하고 있나요?**

 **STEP 1.** 오늘 복음 내용이 뜻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STEP 2.** 내 삶을 오늘 복음에 비추어 생활 속 이야기를 써보아요.

 **STEP 3.** 주님께 바치는 나의 기도나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적어보아요.